

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위한 활동사례

1. 자치단체명 : 대한민국 충청남도
2. 발표자명(소속) : 유문길, 이호철(대천중학교)
3. 발표매체 : 파워포인트
4. 발표요지

한 지역,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발생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은 친환경 지구촌시대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.

이러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의 실태를 부각시키고 주위에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한다. 따라서 우리는 이 발표를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실천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.

가. 교내에서 하는 실천사례

- 1) 교복, 체육복, 학습서를 후배에게 물려주기 : 선배들의 손때가 묻어있는 교복, 학습서를 물려받음으로써 자원절약과 동시에 선배들의 생활모습을 엿보아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.
- 2) 학교정원에 좋아하는 식물 가꾸기 : 식물을 가꾸고 대하는 것은 환경에 친근해지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.
- 3) 학교주변 청소하기 : 매주 월요일 학급활동 시간에 2반씩 짝을 이루어 학교에서 실시하는 길거리 청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
- 4) 환경보존 행사 등 참여 : 학교에서 주최하는 자연관찰탐구대회, 환경글짓기, 환경보존수업 등 환경에 관한 수업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환경보존 방법을 습득하고 실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.

나. 가정에서 하는 실천사례

- 1) 일회용품 사용 자제 : 일회용품은 사용 후에 쉽게 썩지 않는다는 토양오염의 주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린다는 점에서 편리함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. 따라서 우리는 일회용품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사용을 줄여나가고 있다.
- 2) 재활용을 하여 자원을 아끼자 : 폐식용유를 버리지 않고 비누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버리려고 했던 쓸모 있는 폐품들을 재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.
- 3) 물을 아껴 쓰자 : 변기통에 벽돌넣기, 양치할때 물을 컵에 받아 쓰기, 샤워 할

때 물을 계속 틀어놓지 않기, 세제 적게 쓰기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을 아껴쓰고 더럽히지 않도록 실천하고 있다.

최근 환경오염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“누군가 하겠지”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에 치우쳐 있다.

우리 대천중학교 학생들은 이러한 발상을 일깨워주는 것을 목표로 앞에서 언급했던 학교와 가정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있다.

“티끌모아 태산”이라고 집집마다 분리수거 된 작은 쓰레기가 모여 순환에너지 자원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하며 이 기회에 여기 모인 동북아시아 4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.